『유가사지론』 점토(點吐)의 해독 방법 연구

김영욱*

요 약

이 글의 목적은 새로운 구결 문자인 점과 선들을 해독하는 데에 있다. 11세기 문헌 자료인 초조대장경 유가사지론 권3, 권5, 권8 등, 세 권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11세기 문헌 자료인 초조대장경 유가사지론 중에서 본문에 각필로 점과 선이 새겨진 것으로서, 현재까지 발견된 문헌은 모두 셋뿐이다. 해독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의 '전사'→점과 선의 '형태 및 위치 확인'→점과 선의 '분포도 작성'→점과 선의 '음가 확인'→음가가 확인된 것들을 '석독 구결로 번역'.

점과 선의 음가를 추정하는 원칙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정한다. 첫째, 본문에 각필로 새겨진 석독 구결 문자와 점·선을 비교한다. 둘째, 각필로 새겨진 문자와 비교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석독 구결 자료인 유가사지론 권 20에서 비슷한 구문에 있는 토와 점·선을 비교하여 음가를 추정한다. 셋째, 비교 구문도 없는 경우에는 원문의 '문맥적 의미를 고려하고 문법사적인 지식을 동원하여 문제의 점·선토에 대한 기능을 추정하고 여기에 대응되는 형태들에 대하여 음가를 부여한다.

우리는 해독 작업의 성과 여부에 따라, 11세기 당시의 고려인들이 사용했던 언어를 이해할 수도 있다. 본문에 새겨진 점·선들을 석독구결로 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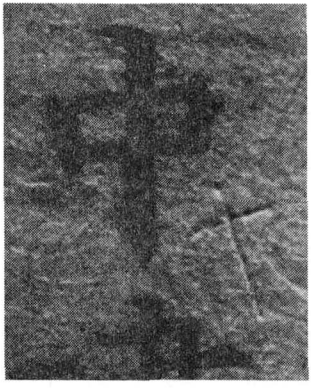
* 서울시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역할 수만 있다면 이것들을 다시 중세국어로도 번역할 수 있으며 중세국어는 현대국어로 번역될 수 있겠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해독작업의 결과는 국어문법사 연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국어학적으로 의미가 있다.

*핵심어: 점토, 선토, 각필, 초조대장경, 유가사지론

1. 들어가기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발견된 고려시대 각필(角筆) 문헌자료는 모두 11권이다.[1] 위의 자료에서 필자의 흥미를 끄는 것은 본문 문자들의 안팎에 새겨진 점들과 4㎜ 내외의 짧은 직선들이다. 이러한 점과 선들은 고바야시(小林 芳規) 선생이 구결학회에 기증한 특수 제작 Scope에 이용하여 발견할 수 있었다.



좌측의 사진은 성암고서박물관(誠庵古書博物館)에 소장된 유가사지론 권8을 Scope로 비춘 상태에서 사진기로 촬영한 것이다. '中'字의 중앙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가면, 사각형 안에 점이 찍혀 있다. '中'字의 오른쪽 아래 부분에는 구결문자로 추정되는 '+[kij]'가 새겨져 있다. 이것은 점의 독음(讀音)을 나타내는 것으로 믿어진다.

1) 誠庵古書博物館에서는 瑜伽師地論卷第八, 瑜伽師地論卷第五,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二十二,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五 十七, 大方廣佛華嚴經卷第六, 大方廣佛華嚴經卷第三十六,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二十, 延世大學校에서는 妙法蓮花經卷第一, 湖林博物館에서는 瑜伽師地論卷第三, 大方廣佛華嚴經卷第三十一, 大方廣佛華嚴經卷第三十四 等이 發見되었다.

이러한 추정을 받아들이게 되면 당시의 점토가 석독 구결로 번역되어 읽혔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다른 각필 구결 문헌에서 발견되었다. 진본화엄경(晉本 華嚴經) 권20(誠庵古書博物館 所藏本)의 난상(欄上)에 '衆生ㅋ身ㄷ中ㅇㅓ(ㅋ[ij], ㄷ[s], ㅇㅓ[a gij], 중생의 몸 중에)'라는 구절이 묵서(墨書)로 기입되어 있다. 이것은 바로 그 아래의 원문에 나타나는 구절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따라서 위의 묵서는 본문에 각필로 새겨진 점과 선들을 석독구결로 읽었다는 사실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점토를 석독 구결과 연결지을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왼쪽의 사진도 유가사지론 권8의 일부분을 촬영한 사진이다. '淸'字에는 2개의 점이 있다. 'ㅣ'의 첫 번째와 두 번째 획 사이에 점이 하나가 있고 '靑'의 오른쪽 아래에 또 하나의 점이 있다. 그런데 '淸'字의 오른쪽 아래에는 'ㅐㅁ[i go]'가 새겨져 있다. 이것 역시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즉, 'ㅐㅁ'는 2개의 점에 대한 독음을 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각필(角筆)로 새겨진 점은 토의 기능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이것을 '점토(點吐)'라고 부르기로 하자. 그렇다면 선으로 된 것은 '선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부호들이 원문에 부기(附記)되어 있다. 이러한 부호들과 점토·선토들이 11세기 당시에 하나의 체계적인 문자 형태로 존재했다고 믿어진다.

그렇다면 점토와 선토, 그리고 기타 부호들을 모두 아울러서 총칭할 때는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 것인지의 문제가 남는다. 남풍현(2000)에서는 '점토구결'로 부르자고 제안하였다. '점토·선토·부호' 등의 3요소 중에서 점이 가장 기본적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여기에는 '토'와 '구결'이 중첩되어 연결된 용어라는 문제점이 있는 듯하다. 이승재(2000)에서는 '부호구결'이라고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석독구결이나 순독구결 등과 비교해 볼 때 문자가 부호로 표시되었다는 특징을 중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호'라는 용어 자체가 '문자'를 포함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가령 '의문 부호'라는 말에서 부호는 자음이나 모음을 표시하는 문자 이외의 부기 표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필자의 현재 입장으로서는 학계의 입장이 굳어지기 전까지 여기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다. 오로지 형태에 따라 '점, 선' 등의 명칭만을 사용하기로 하겠다. 다만 총칭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임시방편으로 '점·선' 구결이라고 하겠다. 어쨌든 작년에 '점·선' 구결이 발견됨에 따라 구결의 종류는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게 되었다. 고려 초기에는 점·선 구결(10~11세기)이 있었고 중기에는 석독구결(12~13세기)이 있었으며, 여말선초에는 순독구결(14~15세기)이 있었는데 15세기에 가서야 우리는 언문 구결(15세기 이후)을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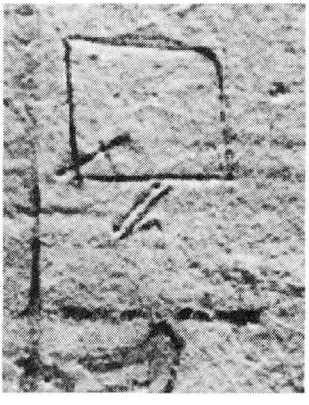
각필이 새겨진 것으로 작년부터 지금까지 발견된 나말여초(羅末麗初) 시기의 문헌에는 세 가지 계통이 있다. 유가사지론 계통과, 화엄경 계통, 법화경 계통 등이 그것인데 화엄경에도 진본 화엄경과 주본 화엄경은 각필로 새겨진 점토, 선토의 체계가 동일하지가 않다.[2] 그렇다면 현재까지 우리는 4가지의 각필 문자들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으면

2) 계통이 다르면 독법도 다르다. 묵서로 기입된 석독구결에서는 계통이 달라도 문자가 같으면 독법이 동일하다. 이런 점에서 새로운 구결의 해독 작업은 기존의 경우보다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다.

안 될 처지에 놓여있다. 4가지의 각각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선행된 다음, 이들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혀야 나말여초 시기의 문자 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이 가능할 것이다.

각필의 흔적이 가장 뚜렷한 것은 유가사지론이다. 점이 깊고 선이 뚜렷하다. 자세히 보면 육안으로도 관찰이 가능할 정도이다. 화엄경의 점·선은 균제미(均齊美)가 있으며 종류도 다양하다. 유가사지론보다 점이 얕으며 선도 가늘고 짧다. 그러나 점토와 선토의 위치는 매우 규칙적이다. 법화경은 각필이 매우 복잡하게 새겨져 있다. 특히, 一名, '따닥點'이라는 것이 많이 나타난다. 크고 작은 두 개의 점이 바짝 붙어있는데, 대나무 끝이 갈라진 상태로 각필점이 찍힌 듯한 인상을 풍긴다. 점·선을 새긴 필기 도구는 단단한 대나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노죽(老竹), 7~8년생).

이 글의 연구대상 자료는 瑜伽師地論 卷三, 五, 八에 한정한다. 유가사지론 권8은 2000년 7월 6일, 제5는 2000년 7월 25일, 권3은 2000년 10월 31일에 각각 발견되었다. 卷八과 卷五는 誠庵古書博物館에 所藏되어 있다. 卷三은 湖林博物館에 있다. 모두 卷子本으로 楮紙에 木板本이며 各張은 23行, 各行은 14字이다. 보존 상태는 모두 양호하다.



2. 분포도

새로운 구결은 點·線의 '位置'에 따라 음가(音價)가 다르다. 분포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位置'도 고려해야 하지만 '形態'도 고려해야 한다. 형태에 따라 크게 셋으로 구분된다: 점토, 선토, 기타 부호(合附表示, 逆讀表示 포함). 점토가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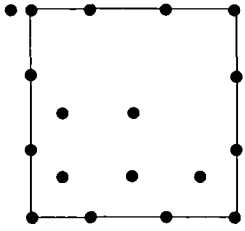
한 쌍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쌍점토'는 點의 배열 방식에 따라 4가지로 세분된다: 斜線雙點吐, 逆斜線雙點吐, 水平雙點吐, 垂直雙點吐. 이러한 선토들은 劃이 그어진 방향에 따라 또다시 네 가지로 세분된다: 斜線吐, 逆斜線吐, 水平線吐, 垂直線吐.

각각의 點·線吐에 대한 분포도는 정사각형 속에 표시하여 정리한다. 좌측 사진은 瑜伽8을 촬영한 것이다. 10張 22行의 欄上에 正四角形의 그림이 있고 點吐와 線吐가 있다. 이것은 당시의 승려들이 漢字를 正四角形으로 인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분포도를 작성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문에 새겨진 點·線의 흔적을 관찰한다. 瑜伽師地論 卷3의 原文字 數는 6,440餘字(23行*14字*20張=6440)이다. 卷5도 6,440餘字(23*14*20), 卷8은 6,762餘字(23*14*21)이다. 특수제작된 Scope를 이용하여 위의 19,642 餘字들을 하나씩 확인해야 한다. 둘째, 관찰된 吐들을 그 形態와 位置에 따라 轉寫한다. 셋째, 전사된 자료를 形態와 位置에 따라 분류한다. 넷째, 분류된 것 중에서 代表形을 선정하여 正四角形의 그림 위에 표시한다.

(1) 유가사지론 구결의 분포도

가) 점토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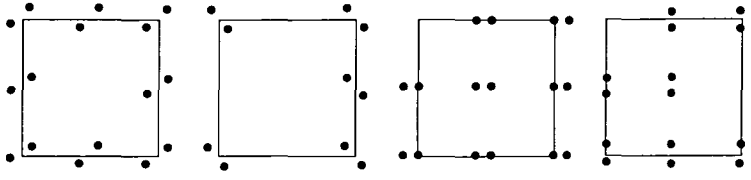
모두 18개의 위치가 확인되었다. 正四角形은 하나의 글자를 나타낸 것이다. 졸고(2001)에서는 25개의 자리를 가정하였는데 현재까지 나온 3권의 책에서 필자가 확인한 것으로는 18개였다. 앞으로 더 확인될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다.

한 文字에 18개가 모두 표시되는 경우는 없다. 한 변에는 4가지 位置가 있다. 그런데 뒤에서 논의하겠지만 선토의 경우는 3자리가 확인되어 점토와 선토 자리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點吐는 모두 1음절 또는 그 이하의 音價를 지니고 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이러한 사실은 아마도 국어 문법형태의 기본적인 단위가 지니고 있는 특징을 암시하고 있는 듯하다. 어쨌든 이들의 음가는 표의적인 것과는 완전히 결별하였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조상들이 사용한 문자 중에서, 진정한 표음문자(表音文字)자의 출발점이 아닌가 한다.

점과 선이 찍히는 位置에 다소의 變異(variation)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이가 해독에 근본적인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 용례가 많아서 한 點吐에 대한 다양한 比較 檢討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자료로도 총 2만 자 가량이나 된다.

나) 쌍점토 분포도

ㄱ) 사선쌍점토 ㄴ) 역사선쌍점토 ㄷ) 수평쌍점토 ㄹ)수직쌍점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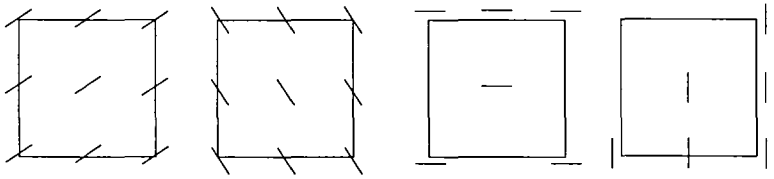


점토에는 한 변에 최대 4자리가 있지만, 쌍점토는 3개이다. 위의 모형에서 알 수 있듯이 두 개의 쌍 점이 이루는 방향에 따라 4종류로 세분된다. 사선쌍점토는 8개, 역사선쌍점토는 5개, 수평쌍점토 8개, 수직쌍점토 7개이다. 모두 28개인데 점토보다는 10개가 많다. 위의 모형을 보면 체계상의 빈칸이 다수 존재한다. 위의 분포도는 필자가 확인한 것에 한정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자료들이 나오면 언제든지 추

가되거나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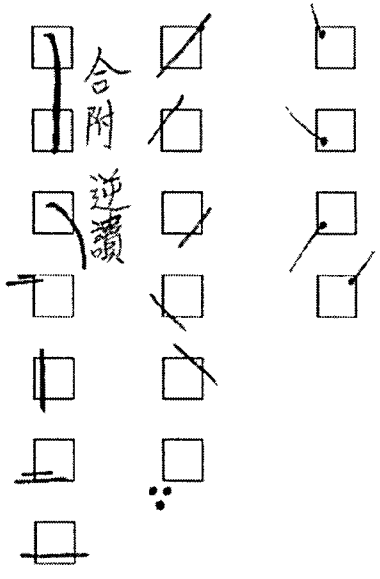
다) 선토 분포도

ㄱ) 사선토 ㄴ) 역사선토 ㄷ) 수평선토 ㄹ) 수직선토



선토도 한 변이 최대 3자리이다. 사선토와 역사선토는 9개 위치에서 모두 확인되었다. 수평선토와 수직선토는 미확인 자리가 3개이다. 확인된 자리는 모두 30개인데 쌍점토보다는 2개가 많다.

라) 기타 부호



合附 表示線과 逆讀表示線은 그 기능을 알 수 있지만 나머지 부호들은 그 기능을 짐작하기가 어렵다. 왼편 그림에서 열거된 것들 외에도 다른 것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기타 부호를 제외하고 확인된 토는 모두 76개이다. 해독을 위해서는 76개의 토에 대한 음가를 확인해야 한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11세기의 구결을 13세기 석독구결로 번역할 수 있다.

새로운 구결의 연구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 이것을 석독구결로 번역하는 작업이다. 고려시대의 석독구결을 15세기 국어로 번역할 수 있게 된 것은, 口訣學會를 중심으로 진행된 지난 20여 년 노력의 결실이다. 새로운 구결에 관한 한, 현재의 연구 수준으로는 76개를 모두 해독할 수는 없다. 발견된 지가 불과 1年밖에 되지 않았다.

해독에 있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점토의 해독이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이며 광범위하게 분포한다. 다음 장에서는 點吐의 解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18개의 點吐에 대한 해독 결과는, 나머지 58개의 解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3. 점토의 해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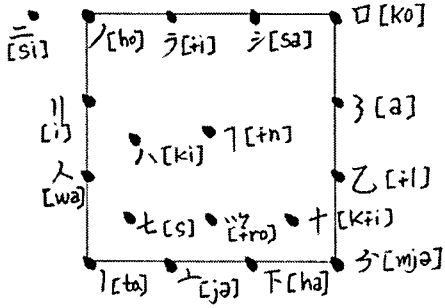
瑜伽師地論은 轉寫資料의 확보에 유리하다. 卷5와 卷8의 전사 자료는 이승재 교수가 複寫本으로 口訣學會에서 공개한 바 있다. 卷3의 전사 자료는 졸고(2001)에서 공개한 바 있으며 이것은 口訣學會 홈페이지에도 실려 있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즉, 현재까지 발견된 瑜伽師地論의 轉寫資料는 세상에 모두 공개된 셈이다.

瑜伽師地論의 點吐는 연구하기에 적절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첫째, 點吐解讀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논문이 불과 1년 사이에 4편이나 쏟아졌다: 이승재(2000), 남풍현(2000), 서민욱(2001), 김영욱(2001). 둘째, 點吐와 釋讀口訣 文字가 동시에 새겨진 것이 11종이나 된다. 따라서 위치가 확인된 18개의 점토 중에서 11개는 직접적인 대조 및 비교 방법으로 해독이 가능하다. 셋째, 동일 계통의 釋讀口訣 자료가 있어서 구문의 대조·비교 연구가 가능하다. 素谷本 瑜伽師地論 卷二十(남풍현 교수 소장본, 再雕大藏經本, 13세기)에는 墨書로 釋讀口訣이 記入되어 있다. 점토와 墨書口訣과의 대조·비교를 통하여 우리는 點吐의

解讀을 보다 엄밀하게 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은 瑜伽師地論 點吐의 解讀圖이다. 설명의 편의상 점토의 음가를 미리 제시한 다음, 그 이유를 밝히겠다.

(2) 瑜伽師地論 點吐의 解讀圖



* 위의 점토 위치는 이상화한 모형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 자료에서의 위치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가령, 위의 점토 위치에서 ㅅ, ㅓ는 그 위치가 조금 더 위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며, ㅣ는 조금 아래로 내려오기도 한다. [mjə]에 대응되는 구결자는 'ㅱ'이다.



'行(8卷-1張-15行-12字)'의 左邊 2번째 자리에 點吐가 있다. '行'字의 右下에 角筆로 'ㅣ'가 새겨져 있다. 이것은 點吐의 音價를 表示한 것이다. 따라서, 左邊 2번째 자리의 點吐는 'ㅣ[i]'로 읽혔다.

'別(8-8-2-2)'의 한가운데에 點吐가 있다. 右下에는 'ㄱ'이 새겨져 있다. 이것은 'ㄱ[in]'으로 읽혔다. 華嚴經에도 이 位置에 點이 있다. 讀法은 瑜伽師地論과 同一하다. 法華經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點吐가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추정된다.

'惱(8-5-8-10)'의 上邊 2번째 자리에 點吐가 있다. 右下에 'ㅋ'가 새겨져 있다. 이것은 'ㅋ[ij]'로 읽혔다. 대체로 屬格助詞로 쓰였다. 15세기 국어에서는 속격

조사 '-의'의 선행 명사가 [+平稱, +有情]의 자질을 지녔다. 釋讀 口訣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점·선 구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生(8-7-23-2)'의 右邊 3번째 자리에 點吐가 있다. 右下에 'ㄹ'이 새겨져 있다. 이것은 'ㄹ[il]'로 읽혔다. 대체로 對格助詞로 쓰였다. 華嚴經에서는 이것과 정반대로 左邊의 3번째 자리에 있는 點吐가 대격 조사로 쓰였다.



'中(8-8-3-4)'字의 중앙에서 右下 방향으로 點吐가 있다. '中'字의 右下에는 '十'가 새겨져 있다. 이것은 '十[kij]'로 읽혔다. 대체로 處格助詞로 쓰였다. 釋讀口訣에서는 처격 조사가 대체로 'ᄀᆡ 十, ᄒᆞ十'였는데 '時'에는 'ㅅ十'가 쓰였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十'가 主로 쓰였다. 다만 '時'에는 'ㅅ十'가 쓰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淸(8-18-12-2)'에는 點吐가 2개 있다. 左邊 2번째와 右邊 1번째이다. 右下에는 'ㅐㅁ'가 새겨져 있다. 左邊 2번째 자리는 'ㅐ'이다. 이에 따라 右邊 1번째 자리에는 'ㅁ'가 대응된다. 이것은 'ㅁ[ko]'로 읽힌다. 그런데 이 位置에 나타나는 逆斜線雙點吐가 있다. 이것의 讀音은 'ノチㅁ[horigo]'로 추정되는데 점토인 [ko]의 음가와도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사실은 쌍점토가 점토의 음가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짐작을 하게 한다.



'攝(3-3-8-3)'의 右邊 2번째 자리에 點吐가 있다. 右下에는 'ᄀᆞ'가 새겨져 있다. 이것은 'ᄀᆞ[a]'로 읽혔다. 이것의 기능은 連結語尾이다. 이러한 活用樣相은 釋讀口訣과 차이를 보인다. 瑜伽師地論 卷二十에서 '攝'이 동사로 사용될 때 동사화 접사 'ᄒᆞ-'가 붙었다: 攝ノ尸所七(瑜伽20, 31張). '-ᄀᆞ'가 직접 연결되는 경우는 없었다.



'處(3-18-22-11)'의 중앙 조금 아래에 點吐가 있다. 그 아래의 水平曲線이 있다. 線吐보다는 길이가 훨씬 길다. 이것은 문자 경계 표시이다. '處' 字의 右下에는 'ゎ'가 새겨져 있다. 이것은 'ゎ[iro]'로 읽혔다. 부사격 조사의 일종이다.



'四(3-20-12-5)'의 左邊 3번째 자리에 點吐가 있다. 右下에는 'ㅅ'가 새겨져 있다. 이것은 'ㅅ[wa]'로 읽혔다. 명사구를 나열하는 기능을 지닌다. 再雕大藏經本에서는 '四'字가 '品'字로 교정되어 있다. 華嚴經에서는 이 위치의 點吐가 대격을 표시하는 'ㄷ'로 읽혔다. 정반대 위치인 점이 흥미롭다.



'色(3-1-8-5)'에는 點吐가 2개이다. 左邊 3번째 위치의 點吐와 중앙에서 左下 방향의 위치에 點吐가 있다. '色'字의 右下에는 'ㄷ'이 새겨져 있다. 左邊 3번째 點吐는 'ㅅ'이다. 나머지 點吐가 'ㄷ[s]'에 대응된다. 이것은 冠形格 助詞나 어간의 말음이 'ㅅ[S]'인 것을 표시하는 데에 주로 사용되었다.



'今(3-9-17-12)'에는 2개의 點吐가 있다. 중앙에 하나가 있고 右邊 3번째 位置에 點吐가 있다. 右下에는 'ㅕ'가 새겨져 있다. 중앙의 點吐는 'ㄱ'이다. 나머지 點吐가 'ㅕ'에 대응된다. '今(3-9-17-12)'을 釋讀口訣로 飜譯하면 '今ㄱ ㅕ'이다. 이것을 다시 15세기 국어로 번역하면 '여ᄃᆞᆫ사'이다. '今'의 諺文 새김(訓)은 '엳(今, :엳 금, 訓蒙字會下2a)'이다. 현대 국어로는 '이제야'로 飜譯될 수 있다.

이상의 11개 點吐는 角筆로 새겨진 口訣文字들과 직접 대응시키는 방법으로 解讀할 수 있었다. 나머지 7개는 同一한 系統의 釋讀口訣資料인 素谷本 瑜伽師地論 卷二十과의 비교 방법과 문맥상의 정보를



바탕으로 點吐의 解讀 作業에 임한다.

'名(3-2-13-8)'의 下邊 3번째 자리에 點吐가 있다. 瑜伽師地論 卷 二十에는 釋讀口訣 文字 'ㅏ[ha]'가 83回 나타난다. '名-'은 64回 출현한다. '名ㅏ'도 64回이다. 어간 '名-'에 붙는 활용 어미는 'ㅏ'밖에 없다. '점·선 口訣'에서도 어간 '名-'에 새겨진 點吐는 下邊 3번째 자리밖에 없다.



'當(8-8-23-5)'字의 중앙에서 왼쪽 방향으로 點吐가 1개 있다. 瑜伽20에 'ㅅ[ki/k]'가 158回 나온다. '當ㅅ'는 57回이다. 모두 부사로 사용되었다. 이 경우에 오로지 'ㅅ'만이 나타난다. '점·선 口訣'에서도 '當'字가 부사로 사용되었을 때 새겨진 點吐는 위의 경우 외에는 없다.



'患(8-1-10-5)'에는 2개의 點吐가 있다. 左邊 3번째와 4번째이다. 3번째 點吐는 'ㅅ'이다. 위의 '患'字는 문장이 종결하는 위치에 있다. 瑜伽20에는 'ㅅ'가 종결어미와 결합하는 경우가 모두 12回이다. 이것은 모두 '-ㅣㅣ[ida]'와 결합되었다. 그렇다면 4번째 點吐가 '-ㅣㅣ'일 가능성이 높다. 이때의 'ㅣ'는 계사이다. 그러나 點吐의 음운론적인 크기가, 媒介母音 'i'의 존재를 제외하고는, 1音節 이하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경향에 의존하여 4번째 點吐를 'ㅣ[ta]'로 解讀한다. 다른 예에서도 이렇게 읽을 만한 근거들을 찾을 수 있다. 가령, '知(8-1-12-2)'에서도 左邊 4번째 자리에 點吐가 있다. 이것은 'ㅣ'로 解讀해야 한다. 이때의 '知-'는 동사 어간으로 쓰였는데 動詞 語幹 뒤에는 繫辭 'ㅣ'가 나타날 수 없다. '故(8-4-23-1)'에서도 마찬가지다. 이것을 '*故ㅣㅣ'로 解讀할 수 없다. 瑜伽20에도 '故'에 종결어미가 붙는 경우는 모두 9回이다. 모두 '故ㅣ'로 나타난다.



'果(3-3-17-14)'에는 下邊 2번째 자리에 點吐가 있다. 文脈上으로는 그 기능이 名詞句 竝列이다: 花果等(꽃과 과일 등). 瑜伽20에는 名詞句 竝列의 기능을 지닌 것으로 'ㅅ'와 'ㅗ[jə]'가 있었다. 그런데 'ㅗ'의 뒤에 결합되는 명사로는 '等'밖에 없었다. 'ㅅ'는 종결어미와도 결합된다. 名詞句 竝列의 'ㅗ'가 종결어미와 결합되는 경우는 없다. '점·선 구결'에서도 名詞句 竝列의 기능을 지닌 下邊 2번째 點吐가 종결어미와 결합되는 경우는 없다.



'能(3-8-5-12)'의 下邊 4번째 자리에 點吐가 있다. 文脈上으로는 부사적인 기능을 지니고 있다: 能了別(能히 了別하는). 瑜伽20에는 'ᄀᆞ[mjə]'가 293回 나온다. 연결어미의 기능을 지닌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접사로 쓰였다. 부사적 기능을 지닌 것으로는 '能ᄀᆞ'가 있었다(55回). '점·선 구결'에서 '能'字가 부사적으로 쓰였을 때, 點吐는 위의 경우밖에 없다.



'故(8-14-16-9)'의 上邊 첫 번째 자리에 點吐가 있다. 이것의 문맥은 다음과 같다: 攝受正法故名(正法을 攝受한 故로 이름하여). 瑜伽20에는 '故'와 '名'이 직접 연결된 構文이 2回이다: 非ᄉᆞᆯᄋᆡᄀᆞᄉᆞᆷ 故ㅣ 名ᄒᆞ 他所勝ㅅ ㅣᄒᆞᄀᆞ(瑜伽20, 15-16張). 여기 사용된 석독구결은 모두 '故ㅣ 名ᄒᆞ'이다. 이것은 '점·선구결'의 '-故名-'과 정확히 대응된다. 따라서 위의 點吐를 'ㅣ[ho]'로 解讀한다.



'言(3-4-16-5)'에는 雙點吐 1개와 點吐 2개가 있다. 문제의 點吐는 '言'字의 左上에 있는 點이다. 이 點吐는 瑜伽師地論 符號口訣에서 특정한 문맥에서만 나타난다: 如經言(經典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문맥을 고려하면 위의 點吐는 경어법을 표시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



다. 석독구결에서는 주체 높임법이 'ㅅ[si]'로 표시되었다. 위의 點吐를 'ㅅ'로 解讀한다.

4. 번역문제

'點吐'와 '雙點吐·線吐'는 '基本單位'와 '複合單位'의 관계에 있다. 예를 들어, '分(3-2-10-8)'은 中央에 垂直 雙點吐가 있고 右下에 '印[in]'이 새겨져 있다. 中央의 點吐는 'ㄱ[in]'이다. '三(8-1-3-8)'의 右上에는 逆斜線雙點吐가 있다. 이것은 瑜伽20과의 構文 比較를 통해 'ノチロ[horigo]'로 解讀된다. 이 位置의 點吐는 'ㅁ[ko]'로 解讀된다. 雙點吐와 線吐에 對한 解讀이 완료되면 우리는 새로 발견된 자료들을 釋讀口訣로 飜譯할 수 있을 것이다.

최초로 발견된 初雕本 口訣資料는 瑜伽師地論 卷八이다. 2000年 7月 6日 誠庵古書博物館에서 發見되었다. '歷史的인 發見'에 최초로 참여한 학자는 4명이었다: 小林芳規(廣島大學), 西村浩子(松山

東雲女子大學), 南豊鉉(檀國大), 尹幸舜(한밭大).

左側 資料는 初雕大藏經 瑜伽師地論 卷八의 原文 寫眞을 com-puter로 出力한 것이다. 原資料는 國寶及 寶物로 열람할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다. 물론 直接 複寫할 수도 없다. 小林 先生이 原資料를 寫眞機로 特殊撮影하였다. 필름을 日本에서 현상한 후, 올해 봄에 來韓하여 原文撮影寫眞 資料를 口訣學會에 기증하였다.

筆者는 그 사진들을 Scanner로 읽은 다음에 이것들을 컴퓨터에 저장하였다. 原資料의 열람에는 시간적 제약이 있다. 그러나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는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없다. 저장된 자료는 확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세하게 관찰할 수도 있다. 左側 資料에 보이는 點吐와 線吐는 독자들이 읽기 쉽도록, 原文의 位置에 符合하게 하여 필자가 그린 것이다. '점·선口訣'에서 현대국어에 이르게 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瑜伽師地論卷第八　　堂)
(　　彌勒菩薩說　　)
(　　三藏法師玄奘奉　　詔譯)
本地分中有尋有伺等三地之五
復次云何雜染施設建立謂由三種
雜染應知何等爲三一煩惱雜染二

이것을 석독구결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復次ㅋ 云何乙 雜染施設建立ㅣ ノチロ
謂(ㄱ) 三種雜染乙 由七(?) 知ノヤ應ヒㅣ
何等ンㄱ 爲三ㅣ ノチロ 一 煩惱雜染 二

'次'의 點吐는 'ㅋ'이고 '何'는 '乙'이다. '立'에는 點吐와 雙點吐가 있다. 點吐는 'ㅣ'이고 雙點吐는 瑜伽20과의 구문 비교를 통해 'ノチロ'로

解讀한다: 云何ㅅㄱㄴ 十一ㅢㅣ ㅅㅎㅁㅁ(瑜伽20, 11章). '謂'에는 中央點吐 'ㄱ'이 省略된 것으로 推定된다. '由'에 그어진 曲線은 逆讀을 表示하는 符號이다. '染'에 2個의 點吐와 1個의 線吐가 있다. 2個의 點吐는 'ㄹ'과 'ㅌ'이다. 'ㄹ'은 對格助詞이므로 '由'의 目的語에 該當하는 '三種雜染'에 붙는다. 'ㅌ'는 '由'와 관련된 것이다. 線吐의 기능을 현재로서는 추정하기 어렵다. '知'에는 線吐와 點吐가 있다. 點吐는 'ㅣ'이고 線吐는 瑜伽20과의 構文 比較를 통해 'ㅅㅎㅌ[oms]'으로 解讀한다: 其相ㄴ 知ㅅㅎ應ㅌㅣ(瑜伽20, 10張). 이때의 '應'은 不讀字이다. 'ㅎㅌ'은 '應'의 뜻을 지닌 敍法(mood) 형태소이다. '等'에는 1개의 線吐가 있다. 이것을 'ㅅㄱ[hAn]'으로 解讀한다. 'ㅅㄱ'에 대응되는 線吐는 그 位置가 중앙이다. 여기에서는 이것이 右側으로 조금 이동되었다. '三'의 경우는 '立'과 마찬가지다. 석독구결을 15世紀 諺解文 樣式으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釋讀口訣) 復次ㅋ 云何ㄹ 雜染施設建立ㅣ ㅅㅎㅁㅁ 謂(ㄱ) 三種雜染ㄹ 由ㅌ(?) 知ㅅㅎ應ㅌㅣ
(諺解文) 復次ㅣ 엇ᄒᆞᄂᆞᆯ 雜染施設建立(이)다 호릿고 닐온 三種雜染을 븟(?) 아롬다

(釋讀口訣) 何等ㅅㄱ 爲三ㅣ ㅅㅎㅁㅁ 一 煩惱雜染 二
(諺解文) 엇다ᄒᆞᆫ(ᄋᆞᆯ) 爲三(이)다 호릿고 一 煩惱雜染 二

'云何ㄹ'은 瑜伽20에서 '云何ㅅㄱㄴ'로 나타난다. 이때의 '云'은 不讀字이며 '엇ᄒᆞᄂᆞᆯ'로 읽혔다. 'ㅅㅎㅁㅁ[horigo]'는 15세기 국어에서 '호릿고[horik'o]'에 대응된다. '由ㅌ'에서 '由'는 訓讀字이다. '由-'의 15世紀 訓은 '븥-'이었다. '何等ㅅㄱ'에서 '等'은 釋讀字이다. '等'의 새김은 '다'이다. 諺解文을 現代文으로 飜譯하면 다음과 같다.

(諺解文) 復次ᄋᆡ 엇ᄒᆞᄂᆞᆯ 雜染施設建立(이)다 호릿고 닐온 三種雜染을 븟(?) 아롬다
(現代文) 다음의 무엇을 잡염 시설 건립이라고 하겠는가? 말하자면 삼종 잡염으로 말미암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諺解文) 엇다ᄒᆞᆫ 爲三(이)다 호릿고 一 煩惱雜染 二
(現代文) 어떤 것을 삼(종)이라고 하겠는가? 첫째 번뇌 잡염, 둘째

'ᄋᆡ'는 관형격 조사 '의'에 대응된다. '엇ᄒᆞᆫ'은 '무엇'에 대응된다. '(이)다# 호릿고'의 # 位置에는 인용격 조사 '고'가 들어갈 자리이다. 15세기 국어에서는 인용격 조사 '고'가 없었다. '을 븟(?)'에서 '븟'에 대응되는 '由'는 현대국어에서 '말미암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말미암다'는 부사격 조사인 '으로'를 지배한다. '아롬다'의 '옴'은 '當爲'의 의미를 지닌다. 현대국어에서는 '-어야 할 것-'에 대응된다.

위의 과정에 따라 우리는 새로운 口訣을 현대문으로 飜譯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으로 11세기 당시의 승려들이 사용했던 언어를 현대인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완전한 이해를 위해서는 노력해야 할 點들이 많다. 첫째, 점토·선토 등을 완전히 解讀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해독된 文字의 문법적인 기능을 밝혀야 한다. 셋째, 밝혀진 문법형태들이 현대국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문법사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넷째, 佛敎 文化에 대한 풍부한 배경 지식이 있어야 새로운 口訣의 文化史的인 價値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5. 要約 및 展望

새로운 國語學 資料를 발견하게 된 것은 小林芳規 교수 덕분이다.

西村浩子 교수는 小林 先生이 고안한 特殊製作 scope를 들고 작년 여름 한국에 왔다. 한국에서 角筆文獻을 최초로 발견한 학자는 西村浩子 교수이다. '발견의 희소식'은 小林 先生에게 보고되었다. 小林 先生은 南豊鉉 先生에게 서신을 보냈다. 共同調査를 提案한 것이다. 南豊鉉 敎授는 공동 조사를 위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小林 先生을 맞이하였다.

2000年 7月 6日은 國語學史에 기록될 날이다. 誠庵古書博物館 所藏 瑜伽師地論 卷八에서 角筆의 痕迹이 발견된 것이다. 口訣學會 회원들은 흥분의 도가니에 빠졌다. 그날 이후 조사에 참여한 회원들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만사를 제쳐두고 資料轉寫와 解讀作業에 전념하게 되었다. 華嚴經, 瑜伽師地論, 法華經 세 系統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필자는 瑜伽師地論에 관한 것을 맡게 되었다.

현재까지 필자가 解讀한 것은 瑜伽師地論 點吐 18개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쌍점토 28개, 선토 30개의 解讀이다. 기타 부호에 대한 해독 작업도 懸案 문제이다. 釋讀口訣資料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國語文法史 硏究의 장벽이 15세기였다. 釋讀口訣資料가 장벽을 12세기까지 끌어올렸다. 이제는 새로운 口訣資料가 발견되었다. 우리는 國語文法史의 장벽을 11세기 이전까지 옮길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새로운 口訣資料는 韓·日 間의 文字史 硏究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訓点·口訣의 비교 연구를 통하여 우리는 字形이나 表記法의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漢文은 역사적으로 韓·日 間의 共通言語 역할을 해 왔다. 漢文의 受容樣相 및 國語化 過程에 對한 硏究는 韓·日 間의 言語文化 交流의 역사를 밝혀줄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문헌

김영욱(2000), 「花郎世紀 眞僞에 關한 文法史的 接近」, 口訣學會 發表原稿

김영욱(2001), 「初雕大藏經 瑜伽師地論 卷 三에 對하여」, 口訣學會 發表原稿.
남풍현(1999), 『瑜伽師地論 釋讀口訣의 硏究』, 太學社: 서울.
_____(2000), 『吏讀硏究』, 太學社: 서울.
_____(2000), 「高麗時代의 點吐口訣에 對하여」, 『書誌學報』 24, 韓國書誌學會.
동국역경원(1995), 『한글대장경 瑜伽師地論』 1, 東國大學校.
서민욱(2001), 「'者'字의 부호구결에 對하여」, 口訣學會 發表原稿.
이승재(2000), 「새로 발견된 角筆 符號口訣과 그 의의」, 『새國語生活』 10卷 3號.
호림박물관(1988), 『湖林博物館所藏 初雕大藏經調査硏究』, 成保文化財團, 淸文閣: 서울.
小林芳規(1989/96), 『角筆のみさびく 世界』, 東京: 中央公論社.

Decoding methods on the Dots and Lines in *Yuga-sagi-lon*

Kim, Young-Wook

The paper aims at decoding 'new writing systems' which discovered last year in Seoul. These were used during 11th century Korye Dynasty. The basic materials of the systems are dots and lines. Each elements have its own sounds. So it is a kind of Alphabetic Writing system. I found the systems in three old books, Yuga-sagi-lon 3th, 5th, 8th, which were published 11th century.

Decoding processes are as follows: Transcriptions, Confirming of the places of dots and lines, Making standard mapping tables of dots and lines, Decoding dots and lines into speech sound, Translating these into Seok-tog Kugyol.

According to the processes, I have decoded 18 kinds of dots. But there are many kinds of dots and lines which are not decoded yet, at least 58 kinds of. If we decoding the systems completely, we can understand 11th Korean language quite well. Especially, the systems new-discovered are similar to Japanese old script Kunten, we will have a new chance on Comparative studies of Korean-Japanese Old Scripts.